

건설 현장 부실 공사 원천 차단 나선다

전주시, 종합대책 마련·시행…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관리·감독 대폭 강화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비롯한 부조리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설계·시공의 적정성 부족과 현장 통제력 미흡 등 구조적·관리적 부실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전국에서 잇따른 건설공사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주시역 공사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 회의와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

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고, 부실 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시는 이달부터 지역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지적인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불합법도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

이다.

특히 시는 도급금액 70억 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직접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기로 했다.

확인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설계서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파복두께의 적정성 △철근 노출 여부 △철근 배근 위치의 적정성 △콘크리트 균열 여부 △개구부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여부 △비계발판 고정 여부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시정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에는 책임 있는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시는 확인된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업체에 벌점 부과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전주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선수단 편의 만전

시, 32개국 선수단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전주시가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FA World Cup Jeonju 2025)’에 참가하는 전세계 드론축구선수단의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시는 사상 최초로 열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참여하는 32개 국 선수단이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항과 숙소, 교통, 지역관광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선수단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영점데스크와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짐 보관과 버스 탑승 안내, 전주 수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어 전주를 방문한 선수단을 위해 3성급 이상 5개 호텔 400여 객실 예약을 완료해 국가별 참가자 수에 맞춰 배정기로 했다.

또 원도심 내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공간을 활용해 수송 서비스 안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선수단 식사는 국가별 특성과 기호에 맞춰 지역 소상공인 도시락 업체가 준비한 한식도시락과 비건파스타, 글루텐프리빵 등을 제공하게 된다.

선수단은 또 별도로 지급되는 교환권을 활용해 Buy전주 참여업체가 운영하는 푸드존에서 50여 종의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시는 대회 기간 드론쇼핑위크와 가맥한마당, 쇼핑패스포트 등 다양한 이

벤트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주를 찾은各國 선수단이 전주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수단 편의 지원 누리집과 가이드북 등을 통해 항공과 비자, 수송, 숙박, 식사, 지역관광 정보를 제공해 전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대회를 마칠 때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지역 전세버스를 적극 활용한 수송 서비스를 통해 선수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고, 지역 운송업체와 상생으로 지역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반지하주택 주거안전망 강화

전주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안전 지키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전주시가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폭서기·혹한기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험으로부터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시역 반지하주택 22개 동(37가구)에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22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거주유형 및 가구 형태 △냉·난방시설 현황 △사회보장

급여 수급 여부 △침수 위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 가구의 63%가 자가였으며, 노인 단독 세대가 많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일러 시설의 경우 모든 조사 가구(100%)가 갖추고 있어 혹한기 거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체 22가구 중 16가구(73%)만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가구(27%)는 선풍기만 사용해 혹서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에어컨을 보유하지 않은 6가구 중 4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주시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자 신청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나머지 2가구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생활유지지원사업을 통해 냉방기기를 설치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완산·덕진구청 및 34개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와 사례관리사와 협력해 혹서기 취약 계층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34개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와 사례관리사와 협력해 혹서기 취약 계층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차기 시 금고 선정 절차 돌입

전주시는 올 연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금고는 전주시의 소관 현금과 시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전주시의 재정운영 업무를 취급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는 2조 6623억 원 규모이며, 제2금고는 1414억 원 규모다.

현재 전주시 제1·제2금고는 각각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3년이며, 1금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2금고는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고 지정 업무를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은

행법에 따른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 총 5개 항목의 19개 세부항목이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 기관을 제1금고로, 차순위 기관을 제2금고로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전주시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차기 금고 선정에 앞서 오는 18일 대우빌딩 7층 영상회의실에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 14~15일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시금고 관리 금융기관을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 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지역 청년들의 AI·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진흥원 산하 전북메타버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 활동은 청년 멘토와 연계해 AI·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AI·가상융합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18세~39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부 양식을 확인 후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푸라닭치킨 전주여의반월점, 어려운 이웃 위해 치킨 전달

푸라닭치킨 전주여의반월점(대표 송흥국)은 9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주민센터(동장 송혜인)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치킨 5마리를 전달했다.

2021년 4월부터 매월 5마리씩 4년 동안 직접 만든 따뜻한 치킨을 돌봄이 필요한 280여 세대에 지원했다.

송흥국 푸라닭치킨 전주여의반월점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치킨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



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